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인영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In Young Cho
Department of Nursing, Dong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시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간호대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1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관적 행복감, 간호전문직관, 대인관계능력, 가족건강성, 학과만족도, 사회적 지지 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고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은 7점 척도에 4.75 ± 1.16 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건강상태($F=6.826, p<.001$)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상태($\beta=.177, p=.005$), 학과만족도($\beta=.138, p=.027$)와 가족건강성($\beta=.268, p<.001$)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16.7%($F=15.160, p<.001$)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 간호사인 고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 증진을 위한 대안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35 nursing students in grades 3 and 4 in K city from May 1, 2019 to May 28, 2019.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contained items on subjective happiness, professional intuition, human relationship, major satisfaction, family health, and social support scal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2.0 program.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subjects averaged 4.75 ± 1.16 on the 7-point scale, and the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 status ($F=6.826, p<.001$).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 subjects' subjective happiness were health status ($\beta=.177, p=.005$), academic satisfaction ($\beta=.138, p=.027$), and family health ($\beta=.268,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16.7% ($F=15.160,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a foundation to develop an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Family health, Happiness, Health status,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In Young Cho(Dong Gang Univ)

email: kikiin1024@naver.com

Received November 25, 2019

Accepted March 6, 2020

Revised January 6, 2020

Published March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감이란 개인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으로써, 개인이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서적 판단을 의미한다[1-4]. 대상자에게 개별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있어 이들이 인식하는 행복감은 간호사 자신의 건강과 안녕뿐만 아니라 간호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인간 중심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5-6].

이러한 간호를 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자세를 형성해가는 시기로서,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6-7]. 따라서 대상자에게 인본주의적 돌봄의 간호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님으로써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간호대학생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국민의 미래 건강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7-8].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경향이 높음을 고려할 때, 미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대학생들보다 과중한 교육과정과 학습량,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관 및 가치관 확립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6-10].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Cha&Lee[11]의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문의 특성상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3, 4학년의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 및 그 부담감이 매우 높다[3]. 이에 이들이 우울감, 슬픔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게 나타남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3,6,12-16].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행복감 저하는 실제로 학업 수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 더 나아가 간호현장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들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대한 확인과 관심이 필요하다[10].

아울러 이들이 인식하는 행복 수준은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정서와 안녕감을 경험할 때 대상자에게 더욱 긍정적인 행동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1,6,8,17].

한편 전통적으로 과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은 개인마다 고유한 설정치(set point)가 존재하여 변화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18]. 그러나 행복감은 심리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 경험으로써[19], 최근 등장하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의해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0-21].

이에 따라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간호학에서도 행복을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행복 관련 변인으로 감정, 생각, 행동 특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3,21-22], 내적 심리적 요인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1,3,7,10].

이러한 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성에 대한 신념 및 견해라 할 수 있는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의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3]. Jo&Park[21]은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한 간호대학생들은 힘든 교육과정을 극복해나가는데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학이 지니는 전문직 특성이나 직업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취업, 성적 등의 이유로 선택한 학생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3,21]. 이렇듯 고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전문직관은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 있는 대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 하는 능력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여김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7]. 또한 Kim, Kim&Cho[7]의 연구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듯이, 행복감의 영향 요인으로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행복 관련 변인으로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들

수 있다. 학과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학과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과를 대하는 태도로서, 이는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8,23].

Nam&Lee[12]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결국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바 있다. 이렇듯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과 학과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행복감 관련 외부 환경적 변인으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24]. 이처럼 가족건강성이 개인의 전반적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24-25]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도 가족건강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한편 Kwon,Jeong&Seo[8]는 가족, 친구, 교수 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즉 학업, 실습,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학과 동료나 선후배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때,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간호전문직관,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개인 심리적 자원과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함께 행복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복감 관련 연구는 대부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단편적인 개인 내적 요인에만 집중되어 인간관계를 포함한 외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행복감과외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을 한 집단으로 묶어 파악한 연구로서, 간호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따른 행복감을 구분하지 못한채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으로써 상승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증재 및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위

한 구체적 간호증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행복은 한국 미래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의 행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9]. 이에 다양한 대상자들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는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은 대상자 간호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인식하는 행복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다.

이에 취업 및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미래의 건강 전문가인 3, 4학년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복감을 지닐 수 있도록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개인, 부모 및 가족환경, 더 나아가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행복감을 확인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미래의 의료인이 될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대안 모색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간호증재를 제공한다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더 나아가 돌봄 수행자로서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행복감 및 행복감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행복감 및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행복감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3, 4학년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K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35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 크기=.15, 유의 수준 $\alpha=.05$, 검정력=.95, 예측 변수 6개의 조건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 표본 수는 146명으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이를 충족하였다.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P01-201902-21-001)을 얻은 후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각 대학의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4학년 간호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각 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 및 공강 시간에 본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해당 학교 간호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의에 달려있으며,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대상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대상자의 결정은 성적 및 학교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에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직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조사는 10분 정도 소요되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재방문하여 수거하도록 하였다. 예상 연구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7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가 제출되지 않거나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35부를 제외한 235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3문항, 주관적 행복감 4문항, 간호전문직관 18문항, 대인관계능력

40문항, 가족건강성 22문항, 학과만족도 27문항, 사회적 지지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1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Lyubomirsky&Lepper[2]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Lim[2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은 척도에 표시된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되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 하였다. 본 도구는 7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매우 행복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7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Lyubomirsky&Lepper[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4.2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Yun,Kwon&Ahn[27]가 개발한 29문항을 Kim[28]이 18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다.

2.4.3 대인관계 능력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uhrmester,Furman,Wittenberg&Reis[29]가 개발한 도구를 Kim&Kim[3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5영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Kim[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4.4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Yoo, Lee, Kim&Choi[31]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I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5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 Lee, Kim & Choi[3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이었다.

2.4.5 학과 만족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Brakamp, Wise & Hengstler[32]가 개발한 도구를 Kim & Ha[3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5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 Ha[3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이었다.

2.4.6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Park[3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4영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3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8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test와 Chi-square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및 행복감 관련 요인들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행복감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행복감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잔차 분석과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총 235명의 대상자 중 3학년이 121명(51.5%)이었고, 4학년은 114명(48.5%)이었으며, 여학생이 207명(8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20-24세의 대상자가 202명(8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4세의 대상자의 수가 7명(2.9%)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성적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가 107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진학한 대상자가 63명(26.8%)으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가족 및 친구의 권유에 의한 진학이 8명(3.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93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74명(31.5%), '아주 건강하다'는 응답이 43명(1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학과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과 수업이 176명(7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N=235)

Characteristic	Category	N(%)
Grade	3	121(51.5)
	4	114(48.5)
Gender	Male	28(11.9)
	Female	207(88.1)
Age	20-24	202(86.0)
	25-29	15(6.4)
	30-34	7(2.9)
	35)	11(4.7)
Religion	Christian	58(24.7)
	Buddhism	19(8.1)
	Catholic	20(8.5)
	Etc	138(58.7)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63(26.8)
	By grade	107(45.5)
	Family recommendation	57(24.3)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8(3.4)
Health Status	Very healthy	43(18.3)
	Healthy	93(39.6)
	Not bad	74(31.5)
	Bad	25(10.6)
Major Satisfaction	Satisfy	20(8.5)
	Normal	172(73.2)
	Dissatisfy	43(18.3)
Difficulty in School	Relation with friend	14(6.0)
	School classes and study	176(74.9)
	Eyes of people around	9(3.8)
	Etc	36(15.3)

3.2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및 관련 변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7점 척도에 평균 4.75±1.16였으며,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척도, 3.76±0.62점이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5점 척도에 3.62±0.39점이었으며, 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은 5점 척도에 3.79±0.78점이었다. 또한 학과 만족도는 5점 척도에 3.28±0.54점이었으며, 대상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에 3.89±0.5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Subjective Happiness and related factors of subjects (N=235)

Variable	M±SD(Range)
Subjective Happiness	4.75±1.16(2.25-7.0)
Professional Intuition	3.76±0.62(2.50-5.0)
Human Relationship	3.62±0.39(2.63-4.83)
Family Health	3.79±0.78(1.41-5.0)
Major Satisfaction	3.28±0.54(1.0-5.0)
Social Support	3.89±0.59(2.56-5.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건강상태(F=6.82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아주 좋은 학생과 어느 정도 좋은 학생은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의 학년, 성별, 진학동기, 종교, 학교생활 중 어려움점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Table 3. Subjective Happiness by Subject's Characteristics (N=235)

Variable	Category	Subjective Happiness	
		Mean±SD	t or F (p)
Grade	3	4.63±1.17	0.226 (.895)
	4	4.88±1.15	
Gender	Male	5.04±1.22	0.090 (.764)
	Female	4.71±1.15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4.77±1.04	.116 (.951)
	By grade	4.70±1.19	
	Family recommendation	4.79±1.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4.90±1.41	
Health Status	Very healthy ^a	5.26±1.30	6.826 (.000)
	Healthy ^b	4.90±1.06	
	Normal ^c	4.35±0.99	
	Bad ^d	4.53±1.36	
Religion	Christian	4.75±0.99	.040 (.989)
	Buddhism	4.82±0.95	
	Catholic	4.79±1.16	
	Etc	4.73±1.27	
Difficulty in School	Relation with friends	4.31±1.16	0.942 (.421)
	School classes and study	4.74±1.17	
	Eyes of people around	4.83±0.71	
	Etc	4.94±1.23	

3.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간호전문직관(r=.204, p<.001), 대인관계 능력(r=.211, p<.001), 학과 만족도(r=.219, p<.001), 가족건강성(r=.340, p<.001), 사회적 지지(r=.303,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다 [Table 4].

Table 4.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Happiness and related factors (N=235)

	Professional Intuition	Human relationship	Major satisfaction	Family health	Social support	Subjective Happiness
Professional Intuition	1	.366**	.303**	.513**	.426**	.204**
Human relationship	.366**	1	.404**	.409**	.587**	.211**
Major satisfaction	.303**	.404**	1	.224**	.405**	.219**
Family health	.513**	.409**	.224**	1	.535**	.340**
Social support	.426**	.587**	.405**	.535**	1	.303**
Happiness	.204**	.211**	.219**	.340**	.303**	1

**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 predicting Subjective Happiness

(N=235)

Category	B	SE	β	t(p)	R ² (adjusted)	F(p)
Constant	2.810	.583		4.817(<.001)		
Health status	.231	.081	.177	2.839(.005)	.167 (.156)	15.160 (<.001)
Major satisfaction	.296	.133	.138	2.219(.027)		
Family health	.398	.094	.268	4.215(.000)		

3.5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관련 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건강상태와 주요 변수인 간호전문직관,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 진단은 다중 공선성, 잔차 값을 확인하였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80이상인 변수가 없어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공차 한계(Tolerance)는 세 집단 모두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건강성($\beta=.268, p<.001$), 건강상태($\beta=.177, p=.005$), 학과 만족도($\beta=.138, p=.027$)순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16.7%로 나타났으며($F=15.160, p<.001$), 다음과 같다[Table 5].

1-4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3, 4학년의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수업이 많아지고 수업과 임상실습이 병행됨으로써,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 저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6]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가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상자가 인식하는 행복감은 건강상태가 아주 좋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Jeon&Lee[3], Jo&Park[21], Lee,Chung&Kim[3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핀란드, 폴란드 등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건강상태를 제시한 바와 유사한 맥락이다[3,36]. 즉 대상자는 예비의료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전공 공부의 양과 과업이 많은 관계로 이들이 학업을 진행하면서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는 대상자 스스로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청년기에 해당되는 간호대학생들은 건강습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행위의 수정 가능성이 크고 이때 확립된 건강습관은 이후의 삶의 기반이 된다[3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보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스스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차원에서부터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건강증진 캠페인,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 및 건강증진 관련 교과 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교과 내 측면에서도 영양, 운동 및 여가 활동에 대한 교과목 개설이 한 대안이 될 수 있겠으며, 이를 위한 교수와 학교측면에서의 노력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3,35].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년 별 행복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Nam&Lee[12]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임상실습이나 전공수업을 통해 학업 및 취업에 대한 확신감이 높아짐으로 인해 행복지수가

3. 고찰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은 7점 척도에 평균 4.75 ± 1.16 점이었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Jeon[6]의 연구에서 5.08 ± 1.04 점, Jeon&Lee[3]의 연구에서 6점 척도 4.17 ± 0.57 점, Nam&Lee[12]의 연구에서 5점 척도 3.48 ± 0.58 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진학동기가 '성적에 의해'로 인한 선택이 높았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행복감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높아짐을 보고하였으나, Lee, Chung & Kim [35]의 연구에서는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행복감이 높음을 보고한 바, 연구마다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후속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간호전문직관, 대인관계능력, 학과 만족도, 가족건강성 및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 학과 만족도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16.7%를 설명하였다.

고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에 있어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대학생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던 Na [2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즉 대학생 시기는 독립을 향해 가면서도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 [25]. 이에 가족건강성은 이제 막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부모 및 가족 변인에 중점을 두어 이들에 대한 애정적인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 이에 입학 시부터 지도교수-학생 간 1대 1 상담 및 학부모와의 만남의 장을 통해 학생들의 가족구조 및 가족이 처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구조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다음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 만족도였다. 이는 학과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한 Kwon, Jeong & Seo [8], Nam & Lee [12]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로써, 간호학과는 전공교과목이 타 학과에 비해 많고,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감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이후 임상에서의 업무수행 역시 높음을 고려할 때 [8, 38],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과목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현행의 간호학과 커리큘럼은 국가고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목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일부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한 흥미나 집중도 향상을 위해 몰입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 간 준비과정의 필요성 [39], 아울러 교과 외 측면에서도 입학 시부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일하는 선배와의 만남, 병원 현장 견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의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대학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혹은 높은 취업률을 고려하여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공선택 전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부모와 교사의 사전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37].

한편 사회적 지지는 사회·환경적 요인의 대표적인 것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40]. 특히 대학생은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인 활동이 강조되는 성인과 달리 사회·환경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큰 영향요인이었음을 보고한 Kim & Jeon [6], Kwon, Jeong & Seo [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국가고시, 다양한 과제 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외부의 지지 및 지원이 이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데로 사료되며, 이에 후속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하여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지체계가 취약한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했던 원인을 파악하여 선배들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의 다양화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6, 39].

아울러 대인관계 역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에도 동료와 협력하여 업무를 하게 되므로, 대인관계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주장한

Kim, Kim & Cho[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고학년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는 가족 기능적 요인인 가족건강성과, 학과 특성인 학과 만족도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 기능적 변수, 전공 및 학과 관련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한 행복감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간호대학생의 가족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족적 지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증재할 필요가 있다. 1학년 때부터 가족환경 및 구조에 대한 선행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적절한 간호증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의 확충, 대학 내 상담시설 확보를 포함한 전문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공에 대한 관심과 만족 신장을 위한 학과차원에서의 증진 방안 모색 시 신입생 시절부터 학생의 심리적 안녕 상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교과 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3,6,39].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행복감 신장 프로그램 개발 마련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 일부 광역도시 소재 학교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 가족 및 학과 요인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개인적 측면의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가족 및 학과 기능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및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증재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는 모두 행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족건강성과 학과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예비간호사가 인식하는 행복감이 있어 부모, 가족 및 학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은 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아 행복감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된 영향 요인으로 가족건강성이 나타난 바 양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족구조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로 분석을 활용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S. Park, J. Y. Kim,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Vol.17, No.1, pp.545-559, 2015.
- [2] S. Lyubomirsky,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No.2, pp.137-155, 1999.
DOI:<https://dx.doi.org/10.1023/A:1006824100041>
- [3] W. H. Jeon, K. L. Lee,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the Happiness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0, No.3, pp.434-444, 2016.
DOI:<https://dx.doi.org/10.5932/JKPHN.2016.30.3.434>
- [4] M. Demir, J. Jaafar, N. Bilyk, M. R. M. Ariff, "Social skills, friendship and happiness: across-cultur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52, No.3, pp.379-385, 2012.
DOI:<http://dx.doi.org/10.1080/00224545.2011.591451>
- [5] D. Flaming,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Vol.2, No.3, pp.251-258, 2001.
DOI:<https://dx.doi.org/10.1046/j.1466-769X.2000.00066.x>
- [6] J. H. Kim, H. 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2, pp.123-132, 2016.
DOI:<https://dx.doi.org/10.12934/jkpmhn.2016.25.2.123>
- [7] J. I. Kim, Y. K. Kim, Y. M. Cho.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pp.1137-1149, 2016.
- [8] Y. C. Kwon, C. Y. Jeong, Y. S. Seo,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1, pp.197-206, 2018.
DOI:<https://dx.doi.org/10.14400/JDC.2018.16.1.197>
- [9] J. M. Kim, S. K. Hong, "Influence of Self-reflection, Self-esteem, and Empathy on Happiness Index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2, No.2, pp.113-120, 2016.
DOI:<https://dx.doi.org/10.14370/jewnr.2016.22.2.113>
- [10] E. Y. Kim, K. S. Lim, "The Effect of Stress on the Happiness Index of Nursi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381-391, 2017.
DOI:<https://doi.org/10.14400/JDC.2017.15.12.381>
- [11] S. K. Cha, E.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650-658, 2014.
DOI:<https://dx.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12] M. H. Nam, M. L. Le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363-374, 2014.
DOI:<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363>
- [13] K. L. Reeve, C. J. Shumakera, E. L. Yearwood, N. A. Crowell, J. B. Riley,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Vol.33, No.4, pp.419-424, 2013.
DOI:<http://dx.doi.org/10.1016/j.nedt.2012.11.009>
- [14] I. A. Shaban, W. A. Khater, L. M. Khu-Zaheya,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tress sources and coping behaviors during their initial period of clinical training: a jordanian perspectiv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2, No.4, pp.204-209, 2012.
DOI:<https://dx.doi.org/10.1016/j.nepr.2012.01.005>
- [15] M. Y. Park, "The Perceived Causal Structure Model on Stres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0, No.1, pp.54-63, 2004.
- [16] M. O. Chae,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4, pp.229-238, 2019.
DOI:<https://dx.doi.org/10.14400/JDC.2019.17.4.229>
- [17] S. Lyubomirsky, L. King, E. Diener,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No.6, pp.803-855, 2005.
DOI:<http://dx.doi.org/10.1037/0033-2909.131.6.803>
- [18] C. B. Woo,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ublic Policies in the Pursuit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1, No.2, pp.283-318, 2013.
- [19] M.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34-43,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5.1.34>
- [20] H. M. Kwon, *The subjective Factors of Happiness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pp.2, 2015.
- [21] G. Y. Jo, H. 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1, pp.160-169, 2011.
DOI:<https://dx.doi.org/10.5762/KAIS.2011.12.1.160>
- [22] K. Layous, S. K. Nelson, S. Lyubomirsky, "What is the optimal way to deliver a positive activity intervention? the case of writing about one's best possible selv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4, pp.635-654, 2012.
DOI:<http://dx.doi.org/10.1007/s10902-012-9346-2>
- [23]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27-36, 2014.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24] K. L. Jang,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levels and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by piversity students on subjective happiness*. Master's thesis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p.40, 2013.
- [25] S. Y. Na,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Family Health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or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Master's thesis of Mokpo University, pp.68, 2017.
- [26] J. S. Lim, *(The) Relationships of a self-enhancement bias,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ld-adults*, Master's thesis of Ewha university, pp.23, 2004.
- [27] E. J. Y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 1091-1100, 2005.
DOI:<https://dx.doi.org/10.4040/jkan.2005.35.6.1091>
- [28] M. H.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of Kyung Hee University, pp.27, 2008.
- [29]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DOI:<https://dx.doi.org/10.1037//0022-3514.55.6.991>

- [30] C. D. Kim, S. I.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Ab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Vol.35, No.1, pp.291-316, 1999.
- [31] Y. J. Yoo, I. S. Lee, S. K. Kim, H. J. Choi,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II)",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4, pp.113-129, 2013.
DOI:<https://dx.doi.org/10.7466/JKMA.2013.31.4.113>
- [32] L. A. Brakamp, S. L. Wise, D. 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1, No.4, pp.494-498, 1979.
DOI:<https://dx.doi.org/10.1037/0022-0663.71.4.494>
- [33]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2000.
- [34]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of Yonsei University, pp.110-112, 1985.
- [35] S. H. Lee, B. Y. Chung, S. H. Kim,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1, pp.115-126, 2015.
DOI:<https://dx.doi.org/10.5932/JKPHN.2015.29.1.115>
- [36] M. Miret, F. F. Caballero, S. Chatterji, B. Olaya, B. Tobiasz-Adamczyk, et al., "Health and happiness:cross-sectional household surveys in Finland, Poland and Spain", *Bull World Health Organ*, Vol.92, pp.716-725, 2014,
DOI:<http://dx.doi.org/10.2471/BLT.13.129254>
- [37] M. J. Jo,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82-190, 2016.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182>
- [38] E. M. Kim, Y. H. Yang, H. Y. Lee, M. Yu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294-303, 2016.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294>
- [39] E. Y. Kim, "A Study on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9, pp.385-395, 2017.
DOI:<https://dx.doi.org/10.14400/JDC.2017.15.9.385>
- [40] S. Cohen, H.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nd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조 인 영(In Young Cho)

[중신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8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간호교육